

# 한국 현대건축에서 ‘근대(성)’의 개념과 성격

— 시대구분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

姜 燉

(경성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 1. 들어가는 말

얼마전 저널리즘을 전공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수는 ‘한국에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학회를 마치고 나서, 어느 외국인 학자로 부터 “당신네 나라가 언제 어떻게 모더니즘을 경험했는지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고 몹시 당황했었다고 한다.

이땅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크게 회자되고 있는 지금, 정작 그 이전 단계, 즉 모더니즘의 수용과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도대체 한국에 모더니즘이란 것이 있거나 했는지에 대해 쉽사리 답변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계속 되어야 하리라 여겨지지만, 필자의 소견으로는 그 외국인 학자의 질문에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입장장을 읽을 수 있으리라 본다.

그 첫째는 서구 중심적인 편향된 시각에서 비서구 사회의 모더니즘을 인정치 않으려는 태도이다. 자신들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경험의 산물인 모더니즘이라는 문화 예술적 모색이 전혀 상이한 역사적 과정을 겪은 비서구 사회에서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소박한 의문이다. 둘째로 설

사 자신들의 것과 유사한(혹은 상이한) 양상의 ‘당신들의 모더니즘’이란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핵심이 빠진, 외견 상의 흉내내기에 불과한 것일뿐, 진정한 모더니즘이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의문의 제기이다. 세째로 그 ‘당신들의 모더니즘’이란 것도 결국은 서구에서 수입해간 또 하나의 奇物일진대, 당신들의 삶의 현실(reality)과는 유리된 낯선 타자(the other)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당신들의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힘으로 작용하며, 절실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서구인의 관점에서 볼때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이러한 질문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특히 한국의 학계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근대/탈근대를 둘러싼 논의는 지극히 우수운 것이 되고 만다. 하지만 일견 타당해 보이는 그 어느 외국 학자의 문제 제기는 실상 그 바닥에 오만한 문화 제국주의적인 시각을 숨기고 있다. 비서구 사회에 근대화를 강요하면서 한편으로는 근대주의(Modernism)의 존재 자체를 인정치 않으려는 태도, 이것이 서구인의 무의식에 여전히 깔려있는 비서구 사회를 보는 눈인 것 같다.

근대성(Modernity)의 모든 기준을 서구에다 고

정시키고 판단의 준거로 삼고자 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비서구 사회의 문화적 노력과 역량을 인정치 않으려는 서구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무지를 읽게 된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심지어 마르크스나 막스 베버에게서도 폭격하거니와<sup>1)</sup> 우리가 열심히 읽는 대다수의 평판있는 '근대 건축사' 책들에서도 비서구 사회의 근대 운동은 전무하거나 그저 한 장 정도 할애되어 취급되는 것이 고작이다.<sup>2)</sup> 그러나 근대화가 비록 서구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전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어온 객관적인 역사적 과정이며, 전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보편적 상황이며, 근대화 과정 중에 체험하는 개인적 집단적 고뇌와 갈등, 그리고 그 문화적 대응이 비서구 사회라고 없을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고려해볼 때, 이런 편견은 심히 부당하다 하겠다. 그리고 최근 비서구 사회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이와 같은 왜곡된 시각이 불식되고 있는 것도 어느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아직까지도 '역사적 근대'의 규명이나 모더니즘의 연구가 거의 대부분 서구의 경험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음도 엄연한 현실이고, 저들의 성과를 적지않게 참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근대화가 안고있는 세계 사적 보편성과 비서구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근대사의 특수성 속에서 우리의 근대를 정의하고 그 근대성의 성격과 의미를 밝히는 작업은 결국 우리의 뛰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쓰여진 한 작은 시도에 불과하다.

- 
- 1) 마르크스는 유럽 만이 자본주의가 발전 가능한 유일한 사회로 인정하고 있으며,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파악함으로서 서구적 모더니티의 특수성과 유일성을 주장한 바 있다.
- 2) 비서구 사회의 근대 운동이 무시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실상이 서구 건축계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데도 있다. 프램튼의 「근대건축의 비판적 역사」나 커티스의 「20세기의 건축」 정도가 비서구 사회의 근대 운동에 대해 한 장 정도 할애하여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 2. 근대의 개념과 시대 구분

근대 건축의 역사(A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를 기술하고자 할 때 건축사가가 직면하게 되는 첫번째 고민꺼리는 '근대'라는 시대의 시작을 어디로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하나의 시대사를 쓰는 일은 필수적으로 그 시대에 대한 어떤 관점과 시대를 궤뚫는 어떤 개념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는 사가의 시대 구분 작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사가가 어떤 특정 시기를 근대의 기점으로 삼았을 때 그는 이미 근대라는 시대의 개념을 (어느정도) 규정하고 그에 따른 근대적 특성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를 상정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3)</sup>

서구 학제에서 조차 근대의 개념규정은 아직까지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매우 문제적인 (problématique) 주제이다. 서구 근대 건축사의 서술에 있어서도 근대의 기점을 잡는 일은 '건축에서의 근대성'을 규명하는 일과 맞물려 계속 연구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근대성의 기원 (origin)을 추적하는 일이 곧 근대의 기점을 잡는 일인데, 새로운 관점에서 근대 건축의 역사를 쓰려는 시도는 예외없이 이 작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다.

서구 근대건축의 記述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정평있는 건축사들 사이에서도 근대의 기원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를 쉽게 발견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초기의 근대 건축사들이 주로 우리가 모더니즘 건축이라 부르는 것의 가시적 출현을 중심으로 근대건축의 기점을 설정하던 경향이었는데, 최근에는 점차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계몽의 시대 양자리에서, 즉 근대적 정신의 출현에서 그 출발점임을 잡고자 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 
- 3)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시대 구분은 역사 인식의 시작 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 시대를 인식하는 시각과 더불어 시작되며, 한 시대를 전체로 통합하는 해석의 결과로 제시된다. 더욱이 시대구분이 역사 속에 내재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의 이해와 서술을 돋기 위해 사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 편 상의 범주화 내지 분류 작업으로 가설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다. 다시 말하자면 르네상스 이래 확립된 고전적 규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건축에서의 새로운 객관적(과학적 혹은 이성적) 기초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된 시점에서 모더니티의 기원 혹은 맹아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다.<sup>4)</sup> 또 하나 흥미있는 사실은 근대 건축의 범위를 초기에는 합리주의 계열의 모더니즘 건축 위주로 한정하던 입장에서 탈피해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건축적인 시도와 노력들, 즉 여러 유형의 사조와 사건들을 폭넓게 포용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협소한 개념에서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근대건축이 역사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학사적 관점의 변화는 물론 근대 건축사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새로이 발굴된 역사적 史實들의 축적과 분야사(부분사)적 성과들에 적지않게 힘입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구 학계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성과 근대주의를 둘러싼 심도있는 논의에 더욱 힘입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서구 건축사학계의 동향은 우리에게 적지않은 생각할 꺼리를 주며, 특히 우리 근대 건축의 역사를 써나가는데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시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 3. 근대란 말을 둘러싼 개념들

여기서 우리는 한국 근대 건축사의 기점을 잡고 시대구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근대'의 개념과 부딪히게 된다. 사실 '근대'(Modern)란 말 자체가 시간대의 범위를 지시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특정 시대의 고유한 성격을 함의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제까지 근대라는 말이 지닌 이중성을 간파하고 근대라는 수식어가 붙는 용어들의 뜻을

명료히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왔다. 그리고 그 개념의 차이와 특성을 무시하고 적당히 혼용하여 사용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근대(Modern or Modern Age)와 더불어 근대화(Modernization)와 근대성(Modernity), 근대주의(Modernism) 같은 말들이다. 이들은 분명 상호 연관되어 있으나 그 역사적 의미나 시기에 있어서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쓰임새에 있어 어떤 차이를 갖는다. 여기에 건축이란 말이 결부되어 '건축에서의 근대', '건축에서의 근대성', '근대주의의 건축' 같은 용어가 되버리면 더욱 혼란스러워 진다. 이 모두를 우리는 막연히 '근대건축'으로 뭉뚱그려 사용해온 것은 아니었을까? 일례로 한국 건축에서 근대건축(Modern Architecture)과 모더니즘 건축(Modernist Architecture)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가, 양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용어의 쓰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시대 구분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뿐아니라 근대의 시대 개념을 둘러싼 논의를 정교히하는 일차적인 길이라고 믿어진다. 그럴때 역사적 사실들의 해석에 따른 입장 차도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

사실 '근대'를 둘러싼 이들 근대화, 근대성, 근대주의는 개념상으로 상호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 근대화가 근대성을 규정하는가 하면 다시 근대성이 근대를 성격지우기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른 뉘앙스를 가진다. 모더니란 수식어가 붙는 이들 용어들에 대해서 서구에선 이미 적절한 정의를 내려려는 시도들이 여러차례 있었다. 그들 사이에도 견해의 차이가 적지않게 존재하기는 하지만, 크게 보아 어떤 공통 분모를 발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비서구 사회에 적용될 때 특수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로, 우리의 작업과 관련하여 주된 관심영역이라 하겠다.

우선 '근대'를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로 하자. 그럴 때 '근대화'는 근대에 진행, 역사적 과정이자 사건으로, '근대성'은 근

4) 구체적으로 유명한 신구 논쟁 이후 18 세기 중엽을 말한다. 이런 근대의 기원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최근의 前期 근대 건축(pre-Modern)에 대한 연구에 크게 힘입고 있다. J. Rykwert, A. Vidler, R. Middleton, A. Perez-Gomez 등의 작업이 그것이다.

대화 과정에서 발현되는 특수한 체험과 의식 또는 성향으로, 그리고 근대주의(모더니즘)는 근대화가 가져온 긍정적 부정적 상황에 대처하려는 온갖 문화적 노력이자 비전, 혹은 관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sup>5)</sup>

근대(modern)라는 말은 서구에서 16세기 이래 자기 시대(현재)를 과거와는 다른 독특한 것으로 의식하고 구별하여 부른데서 유래한다. 그리하여 modern은 항상 그 시대에 있어 '현대'였다. 하지만 대문자 M이 붙는 Modern은 '역사적 근대', 그러니까 근대화라는 미증유의 사건이 야기 시킨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계속되어온 특수한 시간대를 가리킨다. 이 시기 동안에 인간을 둘러싼 세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인류의 삶의 양식 역시 그쳤다. 건축에서 이른바 패러다임의 교체가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다.

근대화(Modernization)는 서구에서 시작되어 전지구적인 규모로 진행되어온 역사적 과정이다. 그 사건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는 세계를 낳았다. 근대화를 한 마디로 정의 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대개 "중세적(봉건적) 질곡에서 벗어나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와 세계에 대한 합리적 사유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열망의 역사적 실천 과정"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서구의 독특한 역사적 조건과 정황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근대화는 18세기 계몽주의에 의해 촉발되었는데, 기성의 낡은 체제와 관념을 타파하고, 인간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 세계를(인간 중심의 유토피아를) 수립하고자 하는 대장정이었다. 계몽의 합리적 프로그램의 추진은 근대의 과학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에게 자연의 지배력과 물적 생산력의 확대, 그리고 봉건적 압제로 부터의 해방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흡스봄의 표현을 빌자면 근대화가 진행된 시기는 혁명과 자본의 시대로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 시민 사회의 도래를 가

5) Perry Anderson, "Modernity and Revolution", in 'New Left Review', 144, Mar-April, 1984.

져왔다.<sup>6)</sup> 그리고 근대화는 인간을 둘러싼 생활 세계(Lebenswelt)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켜 도시화, 계층의 분화, 분업화, 대중사회의 성장, 인간의 파편화와 소외 같은 근대적 상황(Modern Situation)을 가져왔다.

흔히 근대 건축이 성장한 역사적 배경으로 꼽고 있는 문화적 변용, 시공간적 영역상의 변용, 기술상의 변용이라는 인간을 둘러싼 삶의 세계의 거대한 변용(transformation)들이<sup>7)</sup> 19세기 중반이전에 이미 거의 완료됨을 우리는 목격한다. 그러므로 근대화는 건축이 과거의 그것에서 벗어나 혁명적인 변혁을 하도록 추진한 원동력이었으며 동시에 근대 건축이 짹트고 자랄 수 있는 토양이었던 셈이다. 우리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내내 진행된 근대화로 말미암아 건축문화 상에 도래한 일대 위기를 목격하게 되거나와, 이 시기에 전통 건축이 지니고 있던 고유의 상징성과 의미를 점차 상실하게 되고, 건축에 대한 인식 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건축이 제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는가 하면, 건축(architecture)과 건물(building) 간의 분열, 예술(Art)로서의 건축과 기술 공학(engineering)으로서의 건축 간의 균열이 발생함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훗날 근대주의 건축의 중심 교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념과 사고들이 거의 출현하고 있음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물 사이의 관계에 패러다임적 변화가 있었던 이 시기에 인간과 건축 사이에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는 근대적 상황에서 건축에서의 근대성이 출현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에서의 근대성은 근대 건축을 구성하는 주된 인자들인 것이다.

6) E. J. Hobsbawm, 'The age of Revolution : Europe 1789-1848' (혁명의 시대), 'The age of Capital 1848-1875' (자본의 시대), 박현채 차명수 정도영 역, 한길사, 1983, 1984.

7)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Thames and Hudson, 1980, 1992 3rd Edition, p 12-40.

근대성 (모더니티)은 문자 그대로 근대적 특성, 혹은 근대적임을 이르는 말이다. 달리 말하자면 근대라는 시대 상황과 근대화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나타난 특유한 체험과 성향, 근대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의식, 그리고 근대(화)를 주도하는 정신을 가리킨다. 근대성은 멀리로는 르네상스의 인본주의(Humanism) 사상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8세기에 출현한 계몽주의의 정신에서 주로 비롯된다. 그것은 이성주의적, 합리주의적, 과학주의적 정신으로 요약된다. 모더니티는 넓은 과거의 관습과 규범으로부터 스스로 단절하고자 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진보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로 성격지워진다. 무엇보다도 모더니티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은 근대적 합리성(rationality)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근대 사회의 분화된 각 영역(과학으로 대표되는 지식의 영역, 도덕과 법에 의한 실천적 영역, 미적 자율성에 의존하는 예술의 영역)을 지배하는 동일원리로 작용하게 되었다.<sup>8)</sup> 합리성은 근대 건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자 가치로서 구조, 재료, 시공 같은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용 가치와 미학적 측면까지 규제하던 지도이념이었음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더니티는 또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합리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에 반발하는 것으로, 합리적 모더니티에 대립되는 또 다른 유형의 모더니티가 등장하였다. 합리적 모더니티는 자본주의와 산업 문명이 지배하는 객관화되고 物化된 세계의 속성을 집약하며, 근대 사회의 주역인 부르즈와 문화의 모더니티이기도 했다. 반면에 근대화가 심화되고 그 부정적 상황이 심각하게 노출되는 또 하나의 위기적 시기인 19세기 중반 이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이 대항적 모더니티는 오늘날 우리가 모더니즘이라 부

8) J. Habermas, "Modernity-An incomplete project" in 'The Anti Aesthetic :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ed by H. Foster, Washington, Bay Press, 1983, p. 8-10.

르는 것의 바탕을 이루는 정신을 형성했다. 그것은 급진적인 성향을 띠면서 사회 전반이라기 보다 주로 문화 예술의 영역, 즉 미적인 측면에 집중되었는데, 합리적 모더니티의 가치들을 탈신비화시키고 자기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전체적이고 행복한 삶의 약속을 저버린 근대 세계에서 현실과 미적 세계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고 미적 영역에서 유토피아를 구하고자 했다. 전통적이고 관습화된 규범을 거부하고 새롭다는 사실, 그 자체에다 가치를 부여한 이 대항문화의 모더니티는 모더니즘의 실험정신의 근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더니티의 두가지 양상, 그리고 그 표출로서의 다양한 모습은 근대건축, 혹은 모더니즘 건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 좋은 예로 근대화의 가능성과 모친 현실을 건축계가 수용해가면서, 근대 과학과 기술이 이루어 성과와 방법을 건축에 흡수하고 문화적으로 번역하고자 하는 지향(intention)과, 반대로 합리화 과정에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성향 사이의 대립을 들 수 있겠다. 구성주의, 미래파, 바우하우스, 르 쟁크 뷔지에게서 전자의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면 모리스와 멘포드, 표현주의 등에서는 후자의 성향이 더욱 우세함을 발견하게 된다. 합리적 모더니티가 근대 건축의 주도적 지향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건축과 다른 문화 영역 사이에 놓여있는 커다란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모더니즘(근대주의)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고 설명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모더니즘은 유전 런의 지적대로 “어떤 통일된 전망(vision)도, 일치된 실행(practice)도 아니기” 때문이다.<sup>9)</sup> 거기에도 모더니즘이 지니는 여러 측면 중 어느 일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것을 전부인 양 설명하는 기존의 관행이 있어왔다. 그러나 모더니즘이 근대화 과정에서 노출된 온갖 궁정적, 부정적 상황에 대한 문화 예술적 대응이자 비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것은 대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20세기 초

9) E. Lunn, 'Marxism and Modernism' (마르크시즘과 모더니즘), 김병익 역, 문학과 지성사, 1986.

엽이라는 특정 시기에 출현했던 모더니스트와 아방가르드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급진적이고 때론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띤 움직임과 일치한다. 즉 모더니즘은 근대 운동(Modern Movement)이라 부르는 역사적인 활동에 의해 생성되었다. 그러나 모던 무브먼트는 결코 일관되고 통일된 흐름은 아니었다. 그것의 전개는 복잡하고 상호 일치하지 않는 여러 갈래의 흐름들의 공존이었다. 소수의 몇몇 유파나 사조로 모더니즘을 한정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개념에 그것을 가두는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모더니즘은 본질적으로 모더니티에 대한 문화적 탐구였다. 그것은 서구의 오랜 인본적 전통을 계승한 합리적 모더니티와 계몽의 어두운 측면에 비판적인 모더니티 양자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양자 간의 긴장과 해소될 수 없는 갈등은 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성을 이룬다.

우리가 모더니즘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대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그리고 건축 같은 분야의 대표적 모더니스트들에 의해 새로이 구축된 특정한 예술 상의 이념(ideal), 형식(form), 언어(language)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모더니즘은 그것 이전에 전통의 무게가 실린 과거의 관습적인 규준(canon)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하려는 정신(혹은 태도)이 만들어낸 '반전통적인 전통'인 것이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자기 간신적이고 자기 비평적인 전통은 재현(양식)을 거부하고 외부의 자연이나 사회와는 무관한 자기 참조적(self-referential) 구성물로 예술을 보게 하였다. 그리고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하게 되고 자의식적 존재로서 예술가 개인의 주체성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모더니즘의 개념이 지니는 세 가지 충위를 인식하고, 구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데, 첫째가 변화를 의식하며 기존의 관행을 파괴하고 새로움을 계속 창조하려는 전통(tradition)으로서의 모더니즘이고, 둘째가 특정한 시기에 근대 운동이 달성한 성과와 운동(historical movement)로서의 모더니즘이고, 셋째가 그것이 양식화 되고 제도화되어 원래의 정신을 상실한 형식(form)으로서의 모더니즘이다. 첫 번째 자기 간신적 모더니즘은 현재까지 지속되면

서 양식화 되어버린 모더니즘 건축을 전복하려는 탈근대나 해체의 기획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다(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직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에 있다.). 두번째는 근대 건축운동이 진행되던 창조적인 시기에 출현한 모더니즘을 말하며 우리가 본격 모던(High Modernism)期라고 부르는 시간대와 일치하는 고전적인 모더니즘(Classical Modernism)을 말하며, 세번째는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으로 불리우면서 전세계에 퍼진 樣式으로서의 모더니즘과 그 변주들이 해당될 것이다. 보통 우리가 서구 건축에서 모더니즘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근대 건축운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실물 건축, 인물, 사건, 유파,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비서구의 경우는 대개 樣式化된 모더니즘 건축을 가리킨다.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제 양식은 근대 운동의 형태적 풍요로움과 이념적 다양성이 대폭 축소되고 왜곡되어 규범으로 굳어버린 것이다. 그것이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상품처럼 수출되고 지구촌의 도시를 형성하게 되었다. 다니엘 벨이 모더니즘은 지구촌의 지배적인 생활 양식이 되었고 말했을 때 가리킨 것은 바로 양식, 혹은 제도로서의 모더니즘이었다.

#### 4. 건축에서의 근대성과 근대주의

이상의 간략한 정리에서 우리는 건축에서의 '근대'의 개념과 시대구분을 보다 엄밀하고 명료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근대 건축'(Modern Architecture)은 '근대라는 시대'에 출현한 건축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와 더불어 '근대적인'(모던한) 건축, 혹은 '모더니즘 건축'이라는 특수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근대적임과 모더니즘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근대 건축과 근대주의(모더니즘) 건축을 구분해서 보고자한다면 근대 건축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건축에서의 근대화가 진행되던 시기, 혹은 건축에서의 모더니티가 표출되었던 시기의 건축이라 하겠으며, 이에 반해 모더니즘 건축(Modernism in architecture or Modernist

Architecture)은 보다 협소한 개념으로서 모더니스트들에 의해 주도된 근대건축 운동이 진행되던 시기와 그 이후 확장기의 건축으로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근대 건축은 시간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모더니즘 건축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건축을 의미하게 된다. 이럴 때 근대의 시작은 건축에서 바로크의 붕괴 이후 고전언어의 기반이 흔들리고 근대성의 맹아가 관찰되기 시작 하던 18세기 중엽 정도가 될 것이며, 이후 근대화의 모순이 심화되고 근대 운동이 시작되는 19세기 후반까지가 前期 근대(Pre-Modern)의 시기가 된다. 고전주의 낭만주의 절충주의 건축의 시기인 이 시대에, —— 외견 상의 혼돈되고 복잡한 현상 이면에 —— 건축의 본질을 둘러싼 질문들이 제기되고 새로운 건축 사상이 태동하면서 건축적 모더니티라고 부를 만한 것이 계속 출현하고 있었다. 건축을 보고 판단하는 준거의 틀이 이동했으며, 건축과 사회간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전문적이고 자율적 규율(discipline)로서 건축이 자리 잡았다. 그런 가운데 건축에서의 합리주의, 기능주의 같은 혁신적 사고가 쏙트기도 했다. 도시화라는 인간 환경 상의 혁신적 변화가 일어났고 전적으로 새로운 건설 과제들이 등장했다. 건설 기술상의 획기적 발전도 이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다. 즉 (1) 건축에서의 제도적 변화, (2) 건축에서의 이념과 사고의 변화, (3) 건축에서의 생산 수단의 변화가 진행된 前期 근대는 건축에서 합리성이 꾸준히 확대된 시대였으며, 외적인 양식 따위로 쉽게 판단하거나 규정지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모더니즘 건축의 형성사는 대개 근대 건축사 책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19세기 후반, 혹은 1890년대부터 1930년 까지) 급속히 전개된 사건이었다. 이 시기의 활동을 뮤어서 근대건축 운동(Modern Movement)으로 부르며(물론 이후의 모더니즘 건축의 자기 변신과 확장의 역사도 포함), 흔히들 근대 건축사 전체를 근대 건축 운동(M. M.)의 역사와 동일시 하기도 한다. 이 시기에 출현한 다양한 사조와 여러 유파들, 운동들과 선언들, 사건과 인물들의 활약

상은 잘 알려져 있다.

프램튼은 근대건축 운동을 건축에서의 지속적인 문화적 노력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타푸리는 근대건축의 역사를 인본주의의 시대 아래 확립된 서구 건축의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계몽기 이후 위기를 맞이하면서 그것을 상실해간 객관적인 과정의 기록이자 동시에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노력의 역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결국 근대 건축 운동은 근대화의 모순이 심각하게 드러나던 시기에 현안으로 부딪혀온 인간 환경 상의 문제와 산업화에 따른 건축 생산의 문제, 사회 경제적 요구에 합목적적으로 응한다는 문제, 그리고 근대적 감수성을 미학적으로 표출할 새로운 디자인의 문법과 어휘를 고안한다는 문제들에 대한 건축 사회 특유의 응전(response)이었다. 한마디로 그것은 인간을 둘러싼 삶의 환경을 재편하고 재구축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그 진지한 시도가 거둔 성공과 승리는 모더니즘 건축으로 하여금, 하버마스가 잘 지적했듯이, 고전주의 시대 아래 (서구에서) 출현한 유일무이한 통일된 양식이 되게하였고 스스로가 다시 고전적인 전통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sup>10)</sup> 이는 끝없이 새롭고자하는 모더니즘의 근본정신과는 위배되는 것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인류의 생활환경을 형성하고 하나의 규범적 형태로 공식화되어 국제주의 양식이라 불리게 된 것이었다. 이런 연유로 비서구에서 근대주의 건축은 곧 국제양식을 뜻하는 것이 되었고, 그 수용은 대개 의식 보다 형식이 앞서는 유형을 보여주게 되었다.

## 5. 비서구 사회의 근대화와 근대성

비록 서구 근대건축의 역사에서 '근대(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추출해낸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여전히 남는다. 근대는 결코 서구의 경험만으로 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근대화는 전지구적 사건이고 전인류가 공유하는 경험이

10) J. Habermas. "Modern and Post-Modern Architecture" in 「9H」, N. 4, 1982, ("근대건축과 널근대 건축", 「플러스」 70, 1993 02, 강혁 역, P. 161)

기 때문에 세계사적 관점에서 근대를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떠오른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비서구 사회에서의 근대화, 근대성, 근대주의의 성격을 근대화의 전 세계적 보편성과 개별 국가(문명)가 가지는 역사적 특수성 사이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아이젠스타트(S. N. Eisenstadt)에 따르면 근대화는 “서구에서 발생한 특수한 형태의 문명인 근대문명의 전 세계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그 근원은 유럽에 두고 있으되 지구 전체로 확산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제도, 이념·상의 변혁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비서구 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동시에 자기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sup>11)</sup> 일차적으로 근대는 서구의 충격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근대’라는 말 자체가 서구의 산물일 뿐 아니라, 비서구 사회가 자기 역사에서 과거와 다른 현재를 의식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감행한 일, 그리고 그것을 근대라 규정한 일 또한 서구의 선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비서구 사회가 처한 상황과 처지는 각기 다를 수 밖에 없고, 수용의 방식에 따라 근대화의 양상 역시 저마다 다른 모습을 떨 수밖에 없다.<sup>12)</sup>

흔히 언급되는 근대화=서구화라는 도식은 서구 근대화의 과정이나 근대화의 내용을 보편적 모델로 삼아 비서구의 근대화를 정의하고, 그것을 비서구 사회의 근대화의 정도나 단계를 기준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입장이다. 비서구의 서구 사회에로의 수렴정도를 근대화의 판정 기준으로 삼는 이런 관점은, 서구의 경험을 역사발전(변화)의 이상적인 모델로 고정시켜본다는 점과 서구 자체가 부단히 변화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오히려 근대화 과정의 보편성을 인정하되 개별 문명이나 국가의 차이와 특수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 각 사회가 경험하는 근대화가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입장을 받아들일 때 근대화는 서구문화의 수용의 역사일 뿐 아니라 그것의 자국 전통 내에서의 변용의 역사, 혹은 토착화(indigenization)의 역사가 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각 사회의 근대화 경험의 다양성과 차이 만큼이나 각 사회의 모더니티는 다른 패턴을 지닐 수 있으며 저마다 다른 모더니즘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근대화의 범세계적인 과정 속에서도 개별 사회가 어떤 독자적인, 특유의 근대 문화를 형성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처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그것을 어떻게 진정한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느냐 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대응(response)에 좌우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비서구의 근대화의 경험에 있어서 언급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근대화의 여러 층위를 인정할 때, 그 수용에 있어 부문별로 우선도의 차이, 시간의 편차, 지역, 변형 등 다양한 모습의 수용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무슨 뜻인가하면 과학 기술과 산업화는 별 무리없이 받아들여지고 근대화의 본질로 간주되는데 비해 제도, 이데올로기, 의식의 수용은 훨씬 더디며 적지않은 변질을 보이는가 하면, 문화적 산물이나 상징 체계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나 때론 거부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이념, 문화에 따른 수용 양태의 다양성은 건축의 경우에서도 그대로 관찰되어지며 비서구의 건축사에서 근대를 정의하고 시대구분을 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게 하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

## 6. 한국건축사에 있어 근대, 근대성, 근대주의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한국 건축사에서 근대를 규정하고 근대성의 개념을 도출하는데 있어 유용한 몇가지 방향과 단서를 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11) S. N. Eisenstadt, ed., 'Patterns of Modernity', N. 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7, p. 5-11.

12) 김경동 외 3인 공저, 「근대화 : 그 현실과 미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p. 27-32.

1) 우리의 근대건축사 전체를 보는 거시적 시각, 혹은 일관된 해석적 입장은 수립하는 것이 우리

의 근대(성)을 규정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하다.

2) 서구 근대사의 역사적 경험이나 근대에 관한 정의를 참고하지 않고 우리의 근대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일은 곤란하다. 그러나 서구적 기준의 일방적 적용 역시 위험하다.

3) 우리 근대사의 특수성 속에서 한국건축의 근대(성)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외세에 의한 비자발적인 근대화, 식민지 경험 및 전통과의 단절, 고도의 경제 성장과 개발, 분단과 오랜 군사문화의 지배 등이 그것이다.

4) 한국 건축에서의 근대, 근대화, 근대성, 근대주의를 개념적으로 구분해보려는 노력이 시대 구분과 관련하여 시도될 필요가 있다.

5) 한국 근대건축과 한국 모더니즘 건축을 구별하고, 모더니즘 건축을 근대건축사의 일부로 포함시켜서 보는 것이 역사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

우리가 한국의 근대화를 1) 전래의 봉건적 잔재와 비합리적 관습, 규범, 제도를 청산하고(파거와의 단절), 2) 외부의 제국주의적 침입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내부의 모순을 칙결하면서(주체적인 자발성의 확보), 3) 사회 각 부문의 합리화를 이룩하고 민주화된 시민사회를 건설하며(합리성의 확보), 4) 산업화를 이룩하여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산업화), 5) 새로운 한국 문화의 동일성(Identity)을 재정립하고자 하는(문화적 주체성의 확보) 오랜 투쟁과정이라고 보자면, 한국 건축사에서 '근대'는 우리 사회의 근대화 과정과 시간적으로 일치하며, 한국 근대건축은 '건축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등장한 건축 및 그 주변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그것의 내용으로 1) 재래의 전승(convention)과 법식(canon)의 폐기와 서구식 축조법과 건축언어의 도입, 2) 사회 속에 제도로서 건축의 정착, 3) 건축 직능의 전문화와 건축인 집단의 형성, 4) 건축 생산 시스템의 합리화(설계, 구조, 재료, 시공 등), 5) 산업사회 내에서의 도시 및 주거 문제의 대처, 6) 건축에서의 근대적 자의식의 성장, 7) 근대적 감수성의 미학적 표출, 8) 근대건축 내에서의 한국성의 추구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계기와 곡절을 통해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사적 이해와 그 결과로서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근대 건축에 대한 가치 평가는 달리 내려지겠지만, 우리 근대건축이 전반적으로 위와 같은 커다란 변화의 틀 내에서 성립되었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 같다.

한국 근대건축사 전반, 그리고 한국 근대건축에서의 근대성과 근대주의에 대한 필자의 관점과 견해를 두서없이 몇가지 열거해보자면,

1) 한국 근대 건축에서 근대성은 주로 전반적인 합리성의 확대 과정이라는 측면과 상실된 문화의 정체성(동일성)을 수복하려는 노력이라는 양 측면에서 규정되어 질 수 있다. 전자는 기술과 건설, 경제의 관점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근대화의 초기부터 자각되고 수월하게 수용된 가치이자 방법이었으며, 후자는 문화로서 건축의 역할에 대한 자각으로 비교적 늦게 의식화되었다.

2) 한국 건축에서 근대성(모더니티)의 맹아는 서구문화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실용주의적 사상이 대두하며 사회적 생산력이 증대되던 시기, 이른바 '근대적 자각'이 짹트던 조선조 말의 어느 시점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 시기에 환경과 건설에 관한 합리주의적 사고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에서의 본격적인 근대화는 개항 이후 서구 및 일본과의 직접적인 교류 속에서 진행되었다.

합방 후 주체적인 근대화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외세(일제)에 의해 타율적인 근대화가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건축에서의 근대성의 내용이 기술을 통한 합리화에 집중되었던 것은 주로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 이 때 지어진 양식 건축이 서구에선 부르조아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었다면 한국에선 개화, 외세, 서구, 권위를 상징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은 근대 사회의 새로운 제도를 담는 새로운 건물 형식(building type)이라는 측면과 새로운 공법과 건설의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근대성을 담고 있으며, 우리 민족에게 근대적 생활(Modern Life)을 체험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근대건축일 수 밖에 없다. 한편 기층 문화를 중심으로 서구 문화의 충격 속에서

전통 건축문화를 유지하려는 자생적인 노력이 있었다. 식민지 지배 속에서도 한민족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근대화를 위한 각성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한다.

3) 조선조 말부터 일제 말까지를 한국 근대건축에서 前期 근대(Pre-Modern)에 해당하는 시기라면, 해방 이후의 건축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근대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행위가 식민지 문화의 지배에서 벗어나 한국인에 의한 자립적인 환경의 건설 행위로 새출발 하였으며, 과거의 반성과 청산, 문화적 주체성의 회복과 신장, 민족을 위한 건설과 기술, 건축계의 재조직화와 전문화 등, 새출발의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후의 술한 좌절과 굴절, 퇴행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방향으로의 지향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점은 우리의 현대의 시작이기도 하다. 서구에서 근대(Modern)와 현대(contemporary)는 상이한 개념이고 반드시 시기적으로도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 근대는 역사적으로 성격지어진 특정한 시기이자 독특한 삶의 양식, 문화 체계, 의식 상태를 가리킨다. 그것은 르네상스와 같은 고정된 시대 개념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현대는 동시대이며 근대 이후가 된다. 그러나 우리에겐 근대와 현대는 동시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으로서 근대(화)가 현재(동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났고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기에 그렇다. 따라서 우리에게 근대는 곧 현대이며 모더니티는 현대성이기도 하다.

4) 우리에게 '본격적인 근대' (High Modern)는 1960년 이후에 등장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시기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 도시화 같은 근대 특유의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건축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 특유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을 뿐 아니라, 건축계에서도 근대적 감수성과 미의식, 문화적 자의식, 한국성의 추구 등 다양한 모더니티의 발현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우리에게 양식으로서 근대주의(모더니즘) 건축은 존재하고 있었는지 모르나 역사적 과정으로서 근대건축 운동(Modern Movement)은 극히 미

미했다. 아방가르드는 존재해 본 일조차 없었다. 이는 비서구의 모더니즘이 서구문화 요소를 채용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성에 의한 창조적인 변신과 전통의 변용 등으로 자신 만의 고유한 모더니즘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이라할 때, 우리의 근대주의 건축은 그것보다 서구 양식의 수용이 주된 선행가치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6) 우리의 근대주의의 수용은 서구에서 1930년대 이후 하나의 제도화된 양식으로 고착된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의 수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더욱이 형식(form)으로서 모더니즘과 의식(consciousness)으로서 모더니즘의 수용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수용은 주로 미학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발생의 사회 경제적 조건이나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게, 그리고 근본 이념이나 이론과 꾀리되어 수입된 樣式으로서의 근대주의 건축은 근대화의 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근대화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졌고, 사회적으로 선진화, 서구화, 발전, 성장의 의미를 담는 기호의 역할을 담당했다.

7) 근대주의를 수용하여 변용하려는 노력이 일군의 건축가들에 의해 시도되었고 근대의 토착화를 전통의 표출을 통해 실험해 본 경우가 발견된다. 그러나 한국성의 정착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거개가 연상과 기억에 의존한 시각적 실험이었고 건축의 원리적 이해에 의한 이론적 실험이 아니었다. 이런 시도는 곧 관례화된 방식으로 고착되어 관료주의적, 국가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소수의 건축가들의 지도와 실천에 의해 한국 건축계가 인도되고 성장하였다라는 점에서 한국 근대 건축의 영웅 시대(heroic age)이기도 했다.

8) 근대주의가 지녔던 디자인을 통한 사회 개선의 이데올로기는 거의 무시되었고, 현실 비판으로서나 미래파적 비전으로서나 유토피아적 전망은 거의 제시되지 못했다. 근대화의 모순에 대처하려는 사회 의식을 띤 모더니티가 한국 근대주의 건축에는 결핍되어 있었던 것이다.

## 7. 한국 근대건축사의 시대구분

한국 근대건축에서 근대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성격을 밝히는 작업은 한국 근대건축사의 시대구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밝힌 바 있다.

한국 근대건축사에서 시대 구분에 대한 필자의 소견은, 1) 시대의 전반적인 성격에 의거해서 행하되 —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 지나친 세분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커다란 시대구분 내의 작은 시대구분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상황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2) 외래 사조와 양식의 유입에 따른 외적 형태상의 변화에 의해 시대구분을 하기보다는 한국 건축에서 나타나는 근대성의 성격 변화와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며, 3)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문화적 연속과 단절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시대 구분의 가능한 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의 시간대를 한국 근대건축사의 전체 범위로 잡고

2) 19세기 말부터 해방까지를 前期 근대로 잡는다. 이 시기는 우리 건축사에서 근대성의 맹아가 싹트고, 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계속 되며, 서구의 양식 건축과 근대화된 전래의 건축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한편으로 反근대적인 식민지 상황 하에의 문화적인 종속이 심화되고 전통 문화의 해체가 진행되며, 일제 말 민족자본이 성장하고 한국인 건축가 집단이 등장하는 과도기적 상황이기도 하다.

3) 해방으로 부터 오늘까지가 한국 건축사의 근대(Modern)로 건축에서의 합리성의 확대가 지속되면서 문화적 동일성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는 기간이자 과정이다.

4) 그 중 1960년부터 대략 1980년(혹은 1988년) 정도까지가 '본격 모던' (High Modern)에 해당하는 시기로,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

고, 건축의 합리적 생산과 기능적 해결이 더욱 제고되었으며, 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소수 거장적 건축가들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시기이다. 한국 근대주의의 건축이 본격적인 전개가 이루어진 것도 이 시기이다.

이 시대에 근대화의 사회적 환경적 모순이 심화되기 시작하며 한국인의 삶에 있어서 환경상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5) 1960년은 동시에 한국 건축사에서 진정한 현대의 시작이기도 하다.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건축계의 상황이 오늘의 한국의 직접적인 형성 인자였고 강한 연속성을 갖고 있기에 그렇다.

6)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연장선상에서,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해서 한국 근대건축은 후기 근대적 상황에 진입한다. 한국의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변질되면서, 국제화, 정보화 등 후기 산업사회적 징후가 드러나며,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건축에서의 다원적인(혹은 무정부적인) 가치관이 용인되는 사회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 8. 맷는말

이제까지 적지 않은 한국의 근대 건축사의 연구가 있었다. 한국 근대(현대) 건축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선학과 동학들의 노력으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발굴되었는가 하면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입장에서 근대사를 보고자하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연구의 초기단계이며 보다 많은 연구의 축적과 논의들이 이루어져서 다수가 납득하고 인정할만한 역사가 쓰여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근대 건축사를 보는 타당한 해석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 한국 근대 건축사의 해석은 우리의 현재의 이해와 그대로 맞닿아 있다. 그리고 역사란 동 시대의 요구에 의해 계속 새로 쓰여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근대 건축사의 기술도 부단히 계속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The Conception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ity in Korean Modern Architecture

Khang, Hyuk  
(Kyung S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ABSTRACT

For attempting to wright a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the first task might be to establish the beginning of the period and to search for the origin of Modernity in Korean Architecture.

As a member of the third world Modernism and Modernity in Korean Modern architecture has to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Modernity an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ism in Korean architecture. Above all this study suggests to note the peculiarity and the difference in the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within the large frame of modernization. Then maintains that the search for the new cultural identity and rationality instead of lost tradition and convention can be defined as a modernity in Korean architecture.